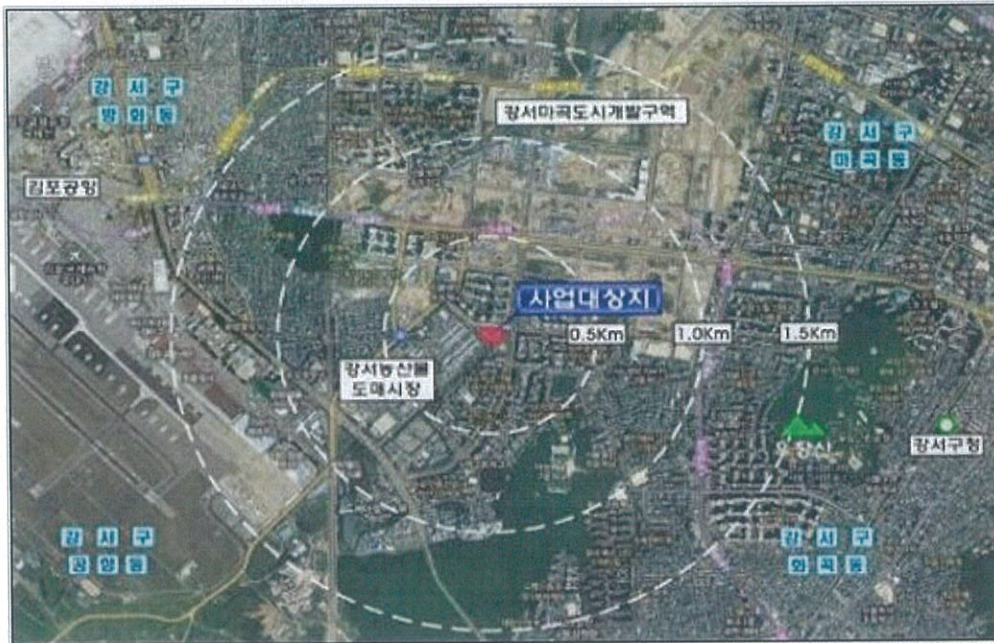


서울 서남권 첫 안전교육센터 2022년 개관

[뉴스시스] 입력 2018.02.27 06: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강서구와 손잡고 2022년 3월까지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근린공원 안에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애주기별 서울시 안전교육을 위한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에 따라 강서구는 안전교육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서울시는 민방위 관련 교육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관련 사업 개발을 각각 맡는다.

이 센터는 광역단체,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한 전국 최초의 대형 안전체험관이다. 정부가 제1차 국민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건립할 22개 안전체험관 중 하나다.

서남권 안전교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3200㎡ 규모다. 6개 체험관 (생활안전·교통안전·자연재난·사회기반안전·범죄안전·보건안전), 10개 체험실, 4D영상관이 들어선다.

올해 말 설계를 시작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내 안전체험관은 6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시내 안전체험관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성북구 민방위교육장, 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보라매 시민안전체험관을 비롯해 민간이 자체 운영하는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로보카폴리 어린이교통공원 등 모두 5개다.

안전체험관이 6개로 늘어나면 하루 약 480명, 연간 약 14만명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추산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앞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와 주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체험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안전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체험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이 안전의 소중함을 평상시에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남권 안전교육센터가 안전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며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켜 전국 확산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daer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포토] 서울시-서울시교육청-강서구,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업무협약

기사입력 2018-02-27 15:16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 조희연(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27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명을 마친 뒤 사진촬영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 네이버 홈에서 '아시아경제' 뉴스 확인하기
- ▶ 양낙규의 '군사이야기' ▶ #아시아경제 페이스북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77&aid=0004188013>